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3

“우리도 함께 뛰다”

농협 '쌀사랑 동호회'

농촌에 희망주는 '농협인' '명품' 전남쌀 전국 알린다

“농촌사랑운동을 널리 알리고, 전남농협 농산물 대표브랜드인 ‘햇빛’과 6년 연속 전국 12대 우수브랜드쌀에 선정된 전남쌀의 명예를 걸고 뛰겠습니다”

김용복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해 50여명의 ‘쌀사랑 마라톤 동호인’들이 제 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참가에 앞서 아쉬찬 출사표를 던졌다.

지역농축산물 집중 홍보

이들은 “국민스포츠인 마라톤을 통해 농촌사랑운동을 마라톤 동호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더불어 전남쌀 등 지역 농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집중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가자들은 올해 농협전남본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유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마케팅 세일즈와 연합사업단 기능을 다져 2조5천억원에 달하는 농축산물 판매고를 올린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10km에 도전하는 박영일(55·전남본부 검사팀) 동호인은 “건강을 위해 시작한 달리기 이제는 생활이 됐다”며 “마라톤은 달려온 만큼 인생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운동”이라며 완주

를 다짐했다.

5km에 참가하는 오정현(45·전남본부 농촌지원팀) 동호인은 “아들에게 3·1운동이 남긴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장거리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 챙기며 새로운 도전

김정오(50·전남본부 검사팀) 동호인은 “고객들을 받들고 봉사는 전남본부의 노력이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마라톤



농협전남본부 쌀사랑 마라톤 동호인들이 5일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출전지를 다지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협인의 의지를 보여 주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버인 고영인(44·전남본부 농정홍보팀) 동호인과 함께 5km에 도전하는 은별(15)·은샘(12)양은 “행버거나 라면 등 패스트푸드를 즐기고 전남쌀로 지은 밥의 소중함을 느끼며 달리겠다”고 환하게 웃었다. 김용복 본부장은 “40여년의 역사와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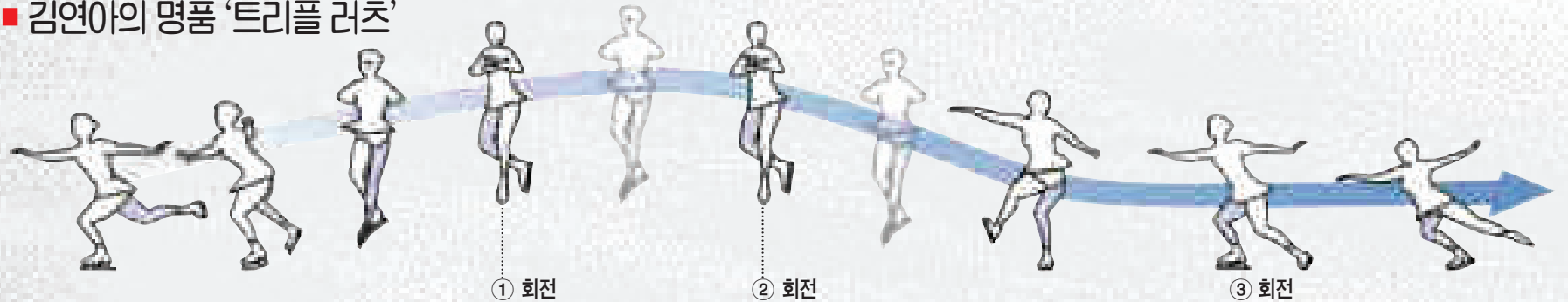
50명 출전의지 다지며 구슬땀

을 자랑하는 3·1절 마라톤대회에 대한민국의 마라톤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전기가 되고, 전 국민이 자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자랑스런 스포츠 축제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며 “농업과 고객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

는 전남농협 구원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달린다는 각오를 참가했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쌀사랑 마라톤 동호회원들도 “모두가 하나되어, 농업·농촌을 위하고 사랑하는 전남농협 임직원이 되겠다”면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을 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김연아의 명품 '트리플 러츠'



밴쿠버의 마력 원더풀 김연아!

4대륙 피겨 첫날 쇼트... '환상의 몸짓' 관객들 기립 박수

역시 '피겨퀸' 김연아(19·군포 수리고)였다.

김연아의 물오른 연기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5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시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마지막 6조에 속한 6명의 선수 가운데 세 번째는 첫 번째 과제인 트리플 플립-트

연기자로 나선 김연아

리플 토투프 콤비네이션 점프(기

서 가산점 0.4점을 포함해 9.9점을 받

어냈다. 이번에는 자신의 장기인 트리플 러츠

위를 활주한 김연아는 정확한 아웃제어로 가볍게 뛰

를 돌고 착지했다. 가산점만 무려 1.4점이 붙는 안

관중석은 두 차례의 점프에 흥분의 도가니로 변

했다. 김연아는 스파이럴 시퀀

스를 레벨 4로 처리하고 나서 더블 악셀까지 가산

점을 1.4점이니 반으면서 승승장구

했다. 이어 레이백 스핀과 플라이닝 시스핀을 잇따

라 레벨 4로 소화하면서 점수를 높인

김연아는 스텝(레벨3)과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으로 절정의 연기를 마무리했다.

반면 세 번째 순서로 나선 아사다는 첫 번째 과제인 트리플 플립-트리플 루트 콤비네이션 점

프에서 두 번째 점프의 회전이 부족하면서 더블 루트 처리돼 점수를 깎았다.

또 약점으로 지적됐던 트리플 러츠마저 더블로 처리됐고, 레이백 스핀과 플라이닝 시스핀도 레벨

2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아사다는 기술점수 29.10점에 예술점수 28.76점으로 합계 57.86점을 얻

어 6위에 머물러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또 함께 출전한 김나영(19·연수여고)과 김현정(17·군포 수리고)도 각각 43.94점과 41.64점을

얻어 나란히 16위와 17위에 올라 쇼트프로그램 24위까지 주어지는 프리스케이팅 출전권을 확보

했다.

앞서 3조 두 번째 연기자로 나선 김현정은 쇼트프로그램 음악인 '포르 우나 카베사'의 탱고 선

율에 맞춰 첫 번째 과제인 트리플 토투프-더블 토투프를 깨끗하게 뛰고 트리플 살로우까지 제대

로 뛰었다.

하지만 오른 발목 부상으로 통증을 느끼면서 레이백 스핀을 레벨2로 처리하고 더블 악셀에서

넘어지면서 41.64점에 그쳐 17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김연아 쇼트프로그램 연기 어떻게 펼쳤나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순위	선수명	점수
1위	김연아 (KOR)	72.24
2위	조혜린 (KOR)	66.90
3위	신시아 파투르 (FIN)	60.98
4위	스구리 후미에 (JPN)	60.18
5위	캐롤라인 장 (CAN)	58.18
6위	야사다 마오 (JPN)	57.86
7위
16위	김나영 (KOR)	43.94

5일 김연아 주요 경기 내역 및 점수

쇼트프로그램: 72.24 (기술점수: 42.20, 예술점수: 30.04)

프리스케이팅: 66.90 (기술점수: 34.00, 예술점수: 32.90)

합계: 139.14

김연아 “세계 신기록 생각도 못했어요”

‘피겨퀸’ 김연아가 쇼트프로그램 여자 싱글 역대 최고점 경신의 기분을 프리스케이팅까지 이어가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 첫 우승을 달성했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연아는 연기를 마치고 나서 “지난 시즌보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아진 것 같다. 그라프 리 파이널 때도 실수를 했는데 65.94점이나 나왔다”라며 “실수만 없으면 70점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고점이 나올지는 몰랐다”고 웃음을 지었다.

최고점을 낼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는 “지난 두 시즌 동안 매년 2월계 부상으로 마무리가 좋지 않아서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애썼다”라며 “내년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될 밴쿠버에서 최고점을 깨서 기분이 좋다. 이 느낌 그대로 프리스케이팅까지 가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김연아는 이어 ‘최고점을 예고한 순간’에 대한 질문에는 “솔직히 연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실수를 할지 몰라 끝까지 긴장을 풀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경기장의 세로축이 좁은 것에 대한 느낌에는 “경기를 치르기 전에 링크가 좁다는 생각이었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경기를 많이 해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며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될 링크인 만큼 좀더 긴장되긴 했지만 다른 때와 똑같은 느낌으로 연기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연아는 특히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57.86점)가 부진한 것에 대해 “주변에서 항상 아사다와 비교를 많이 하지만 특별히 어떤 특정한 선수에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라며 “항상 그래 왔듯이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싶다”라고 답답하게 밝혔다. /연합뉴스